

## 영업정지 기간, 경쟁은 줄어들지 않았다

## Analyst 황성진

02) 3787-2658  
hsj@hmcib.com

## Jr. Analyst 김영인

02) 3787-2126  
youngin.kim@hmcib.com

- 2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84.6만명(자사이동 제외), 영업정지 기간에도 전년 동월비 15% 증가
- 2월 SK텔레콤 및 KT의 영업정지 효과로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순증이 두드러져
-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낮춤은 불가피, 장기적 ARPU 성장에 대한 기대는 유효

## 2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84.6만명, 영업정지 기간에도 전년동월비 15% 증가

2월 이동통신 부문의 번호이동자수는 총 84.6만명으로(자사 번호이동 제외)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비 15% 가량 증가하였다. 지난 1월의 번호이동자수는 100.8만명(자사 번호이동 제외)으로 전년 동월비 25% 가량 증가한 바 있다.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특성상, 각 사들이 자사의 영업정지 기간 전후로 잃었던 가입자를 다시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2월은 SK텔레콤 및 KT의 영업정지 효과로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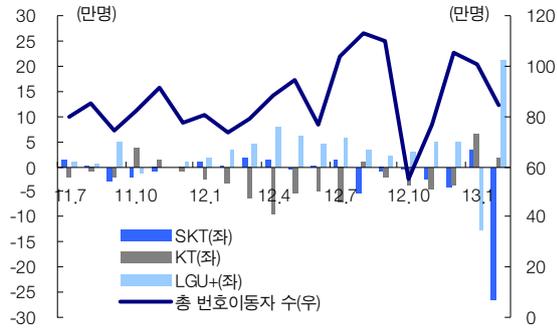
MVNO 이동을 포함한 2월 번호이동 순증은 LG유플러스가 21.2만명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1.6만명의 순증가입자를 기록한 반면, SK텔레콤은 26.7만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이는 1월 31일~2월 21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참고로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1월의 번호이동 순증은 KT가 6.4만명, SK텔레콤이 3.1만명 수준이었던 반면, LG유플러스는 12.5만명의 가입자를 잃은 바 있다. 1월에 잃었던 가입자를 2월에 그 이상으로 복구한 것이다.

##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낮춤은 불가피, 장기적 ARPU 성장 기대는 유효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잃었던 가입자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KT가 영업정지 기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3월 13일 3사의 영업정지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당분간은 경쟁심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만간 갤럭시S4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 역시 경쟁환경 안정화에는 부정적인 요소이다. 위약금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쟁 안정화 가능성이 상존하나, 단기적으로는 경쟁 심화 압력이 더욱 커 보이는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은 마케팅비 부담과 전년도 최고치를 기록했던 CAPEX에 의한 감가비 부담이 겹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하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반적인 통신업체 ARPU 상승 및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이다. 1) 단기적 경쟁심화 압력은 상존하나, LTE 침투율이 50%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점진적인 경쟁 안정화가 예상되고, 2) ARPU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으며, 3) 가입비 폐지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 역시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1> 월별 MNP 추이



자료 : KTOA

<그림2> 월별 번호이동 증가율 추이(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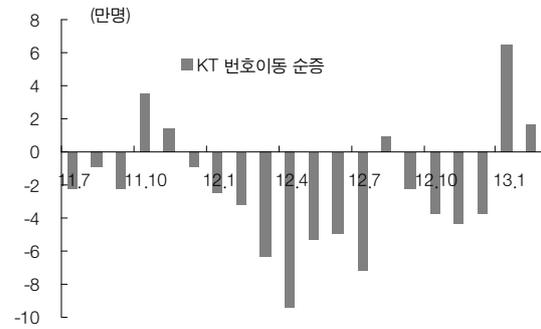
자료 : KTOA

<그림3> SK텔레콤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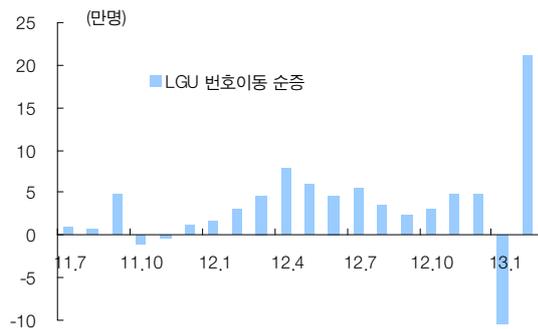
자료 : KTOA

<그림4> KT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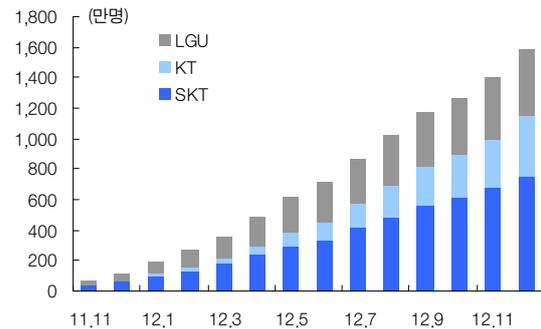
자료 : KTOA

<그림5> LG유플러스 번호이동 순증 가입자 추이



자료 : KTOA

<그림6> LTE 가입자 추이



자료 : 방통위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황성진, 김영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업종 투자의견 분류 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HOLD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